

## 도시 커먼즈

강현수\*

### 1.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커먼즈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도시 연구자와 도시 활동가들이 도시 커먼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도시 커먼즈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 학계의 커먼즈 담론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언급한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공유지 관리(Governing the Commons)의 대안을 제시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선구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연자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오스트롬의 커먼즈 논의는 이후 지식과 문화 등 비물질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전 지구적 기후환경 위기를 목격하면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커먼즈로 보는 관점도 나타났다. 커먼즈 담론의 확장은 관련된 실천 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으로 상징되는 지식의 배타성을 거부하고, 지식을 인류 공통의 공유재로 보는 지식 커먼즈 담론의 발전은 카피레프트, 오픈소스, 오픈액세스, 크리에이티브커먼즈 같은 운동의 산물이자, 운동을 촉진하고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커먼즈 담론과 커먼즈 운동이 함께 확산되면서 커먼즈

---

\* 중부대학교 교수(hskang@joongbu.ac.kr).

는 자본주의의 과도한 사유화와 상품화에 따른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 담론과 운동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커먼즈 담론의 확장 흐름 속에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인류 다수의 삶의 터전이 된 도시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도시 커먼즈 담론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도시 커먼즈 이론가인 하트와 네그리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적 삶이 보편화된 오늘날 도시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 생산되는 원천이자 공통적인 것이 모이는 저장소인데, 도시의 공통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와 금융 제도에 의해 사유화되면서 파괴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Hart and Negri, 2009). 하비는 도시화 과정은 도시 커먼즈를 생산하는 과정인 동시에 사적 이익집단이 도시 커먼즈를 영유하고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시 커먼즈를 생산·보호·이용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Harvey, 2012a, 2012b).

서구 학계에서는 2015년을 전후해 하트와 네그리, 하비를 뒤잇는 도시 커먼즈 관련 연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sup>1)</sup> 최근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배경은 도시 거주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할 도시 공간과 도시 자원이 사유화, 상품화되면서, 즉 자본과 부동산 투기자들에 의해 인클로저(enclosure) 되면서, 그로 인한 도시의 활력 상실과 지속가능성 위기,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현재 상황 때문이다. 커먼즈 담론과 실천이 현재의 법 제도나 정책 현장에 적용하기에 너무 모호하거나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 관련 공론장에서는 도시 커먼즈 관점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각축이 벌어지기도 한다. 2016년 열린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도시는 커먼즈’라는 입장을 해비타트 III의 공식 발표문인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핵심 개념에 포함시키는 문제

1) 2015년을 전후하여 Borch, C. et al.(eds.)(2015), Dellenbaugh, M. et al.(eds.)(2015), Stavrides, S.(2016) 등 도시 커먼즈를 주제로 한 일련의 도서와 논문이 본격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으며, 결국 도시를 커먼즈로 보는 입장이 기각된 바 있다.<sup>2)</sup>

## 2. 국내 도시 커먼즈 논의와 이번 《공간과 사회》 수록 논문

서구 학계에서 도시 커먼즈 연구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커먼즈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황진태(2016), 권범철(2017), 이승원(2019)의 연구 등을 필두로 최근 국내 도시 커먼즈 연구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도시 커먼즈 논의의 중심에는 《공간과 사회》가 있다. 《공간과 사회》에서는 2019년 가을 호(통권 69호)에서 ‘도시와 커먼즈’를 특집 주제로 다룬 바 있다. 이후 박배균 등은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먼즈의 도전』(빨간소금, 2021)이란 책을 펴냈다. 2021년 초 서울시가 발표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에서는 커먼즈 담론에 입각하여 서울시를 시민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으로 자원의 공동 생산과 공동 관리를 실천하는 공유 플랫폼 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공식 계획에 담았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22년 도시 커먼즈를 특집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지방정부와 국책연구기관까지 도시 커먼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 커먼즈에 대한 이 같은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이번 호 《공간과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도시 커먼즈’를 특집 주제로 잡았다. 이번 ‘도시 커먼즈’ 특집에는 다음과 같은 네 편의 글이 실렸다.

첫 번째 글인 한경애의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적 커먼즈로: 동아시아의 시선으로 보는 도시적 커먼즈」는 이론적 논의와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적 커먼즈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저자는 1970년대 서울의 난곡희망협동조합을 꾸린

---

2) 이에 대해서는 강현수(2021: 87~93) 및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2017) 참조.

도시빈민여성들이 관리할 자원이 애당초 없었던 조건에서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는 전통적 농촌형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돌보는 ‘도시적 커먼즈’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빈민여성들은 새로운 것들과 마주치는 도시적 조건에서 타자와 관계 맺고 존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 즉 주체화의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공동체나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도시적 커먼즈를 만들었다. 이는 도시적 커먼즈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오스트롬처럼 공동체, 자원, 실천을 커먼즈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간주하고 공동체가 자원을 관리한다고 보는 기존의 도시 커먼즈 논의들이 주체(공동체)와 객체(자원),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분법적 인식론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두 번째 글인 윤여일의 「도시 속 공터는 어떻게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 경의선 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를 상호비교하여」는 공공부문(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이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진 도시 속 공터를 공유지(커먼즈)로 전환하고자 했던 세 곳의 실천 운동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저자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인 공터를 공유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여겨지는 공공부문과 심한 갈등을 빚거나 공공부문에 의해 좌절된 것에 주목하면서, 공공 소유와 공익적 활용 사이의 간극, 공유지의 가치와 공유지 전환 운동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한다. 저자는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표방한 공공공간(public space)이라도, 공유화 활동(commoning)이 없다면 공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서로 관계 맺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공유화 활동의 주체가 도시 공공공간의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본 연구에서 풀지 못한 핵심 질문이 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공공공간의 공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의 내용이 합의되었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공유화 활동의 주체가 도시에서 형성

되고 그 주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세 번째 글인 최명식의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은 공동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뜻하는 ‘사회적 부동산’ 개념을 도시 커먼즈 담론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침체되었던 상가거리의 빈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 매입하여 마을 펍과 마을 호텔로 운영하고 있는 목포 건맥1897협동조합 사례는 저자가 정의한 ‘사회적 부동산’, 즉 지역주민 다수가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자, 커먼즈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도시 커먼즈 사례이기도 하다. 저자는 사회적 부동산이 도시 커먼즈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시 커먼즈가 생산·재생산되는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 번째 글인 이현우와 정석의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연구: 공유인 관점으로 바라본 돈의동 쪽방촌 마을식당 현장을 중심으로」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의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을 사례로 도시 커먼즈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글에서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지역 공동 문제’와 ‘중추 공유인’이다. 자원이 결핍한 쪽방촌을 자세히 들여다본 저자들은 자원이 없어도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자원과 규약을 만들어 가면서 도시 커먼즈가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 커먼즈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공유화(commoning)의 핵심 주체인 ‘중추 공유인(key commone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번 공간과 사회 ‘도시 커먼즈’ 특집호에 실린 네 편의 글은 국내 도시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를 커먼즈 관점에서, 연구자 자신의 독창적 시각을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 이 네 편의 글이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국내 도시 커먼즈 연구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 예컨대 도시 커먼즈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도시 커먼즈는 오스트롬이 말한 자연자원에 근거한 커먼즈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도시 커먼즈가 도시민 다수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도시 커먼즈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주체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폐쇄적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깊고 풍부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학술 연구가 단순히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기록하거나 해석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촉발하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까지 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도시 커먼즈 연구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21.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개정판). 책세상.
- 권법철. 2017.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제27권 2호, 119~149쪽.
- 박배균 외. 2021. 『커먼즈의 도전: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 박인권. 2019. 「포용적 공유도시와 커먼즈」 《공간과 사회》 제29권 3호, 5~12쪽.
- 서울특별시. 2021.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제29권 2호, 134~174쪽.
- 한국법제연구원. 2022. 「도시커먼즈」.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2022년 4월 호.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1~16쪽.
- Borch, C. and Kornberger, M.(eds.). 2015.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 Dellenbaugh, M., Kip, M., Bieniok, M., Müller, A. K., and Schwegmann, M.(eds.). 2015.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auser.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162, Issue.3859*.
- Hart, M. and Negri, A. 2009. *Commonwealth*. Belknap Press(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 2014.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 Harvey, D. 2012a. "The Future of the Commons." *Radical History Review*, Vol.2011, Issue. 109 (데이비드 하비. 2017. 「커먼즈의 미래」. 한서린 옮김. 《창작과 비평》 제45권 제3호).
- Harvey, D. 2012b.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Right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데이비드 하비. 2014. 『반란의 도시』.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 Huron, A. 2017. "Book Review Essay, Theorising the urban commons: New thoughts, tensions and paths forward." *Urban Studies*, Vol.54. No.4.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엘리너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 Stavrides, S. 2016. *Common Space: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2017. *Habitat III Policy Papers: Policy Paper 1 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 www.habitat3.org